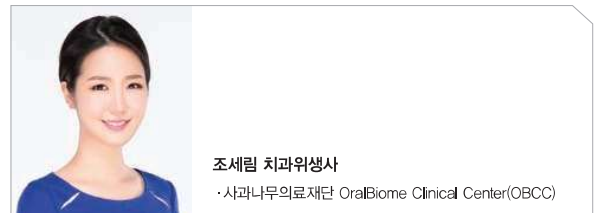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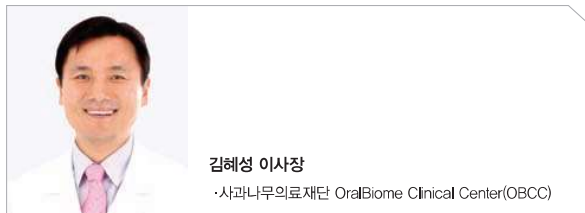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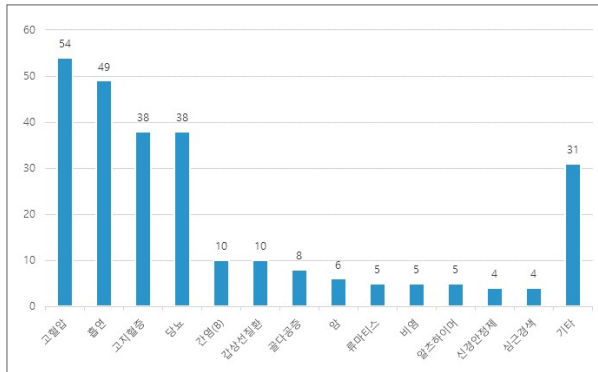
# 에어플로우® MAX를 활용한 입속 세균관리

## - 2. 흡연&치주질환 환자 -

치주질환과 흡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. 치주조직에 대한 흡연의 영향은 1940년부터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, 흡연자들이 치주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1.5배에서 7.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. 담배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해성분들은 심각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해로운 박테리아의 개수 및 위험도 역시 증가시킨다.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, 치과는 환자에게 무엇을 권할 수 있을까? 그 해답을 새롭게 출시된 에어플로우® MAX를 활용하는 GBT(Guided Biofilm Therapy)에서 찾아보고자 한다. 본지는 신홍에서 자료협조를 받아 사과나무의료재단 김혜성 이사장과 조세림 치과위생사의 에어플로우® MAX를 활용한 입속 세균관리 글을 지난 9월호부터 11월호까지 3회 연속으로 게재한다.



### 흡연과 치주질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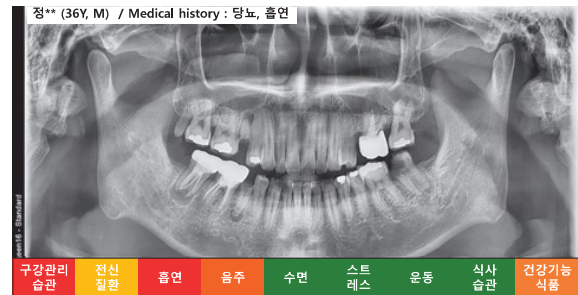


그래프 1. OBCC 관리 환자 전신질환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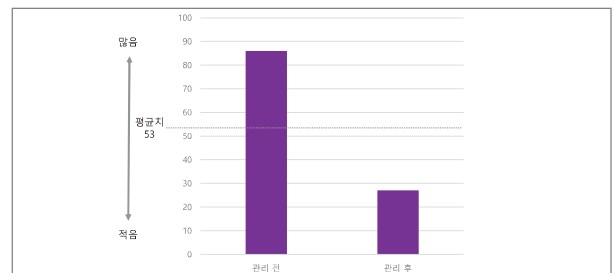
위의 그래프는 본원인 사과나무의료재단 오랄바이옴 임상센터 계속구강관리 환자의 전신질환 통계자료다. 고혈압 다음으로 흡연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.

이와 같이 흡연이 많은 전신질환의 주인이 되고 치아 및 구강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. 흡연은 치주질환 유발률, 심도, 범위 모두에 영향을 준다. 게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치초골 소실을 증가시키는 반면 출혈 양상은 감소시켜 사람들이 잇몸에 발생하는 문제를 덜 인식하게 만든다. 이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는 흡연자의 고민은 담배로 인한 착색, 치주질환, 구취인 경우가 허다하다.

### 흡연자 케이스: 담배로 인한 치주질환



자료 1. 해당 환자는 36세 남성 환자로 전신질환으로는 조절되는 당뇨가 있고,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다. 담배로 인한 착색, 치주질환, 구취의 문제로 본원에 방문한 케이스이다. 구강관찰 시 치료가 필요한 다수 치아가 있었고 몇 년간 스케일링을 받지 못해 다량의 착색 및 치석, 염증을 관찰할 수 있었다. 또한 구취 측정 결과 역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.



자료 2. 암모니아 측정 결과(구취)

착색과 치주질환에 있어서의 금연이 가장 좋은 답이지만 환자의 직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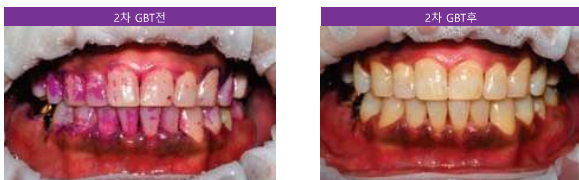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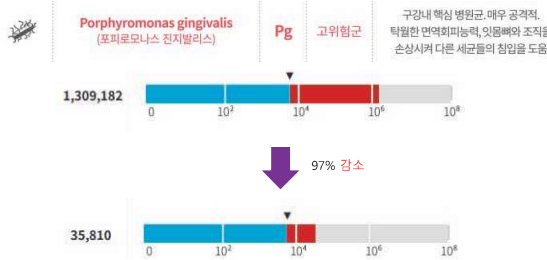
특성 상 금연을 할 수 없으며, 구강관리습관도 형성되지 않아 자주 치과에 방문해서 관리를 받기 원했다. 따라서 치주치료와 함께 착색과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EMS의 에어플로우® MAX를 활용하여 GBT(Guided Biofilm Therapy) 파우더 스케일링을 진행하였다. 본원에서는 GBT 1단계 '진단 및 감염관리'와 3단계 '동기 부여'에 오랄바이옴 검사(Human Oral Microbiome)를 활용하고 있다. 구강유해균검사를 통해 구강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유무와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관리 전, 후 구강유해균검사를 통해 개선된 점을 리포트로 제시하여 환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하고 있다.



### GBT 파우더 스케일링 전후 비교



자료 3. 해당 환자는 구강 유해균검사 종합결과 GBT 파우더 스케일링 전 100점에서 GBT 관리 후 66.6점으로 33.4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. 그 중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고위험군 세균인 진지발리스의 경우 관리 후 97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1차 GBT 파우더 스케일링에서는 에어플로우® 기본 핸드피스를 활용하여 관리를 하고, 2차 GBT 관리에서는 에어플로우® MAX 핸드피스를 활용해 관리를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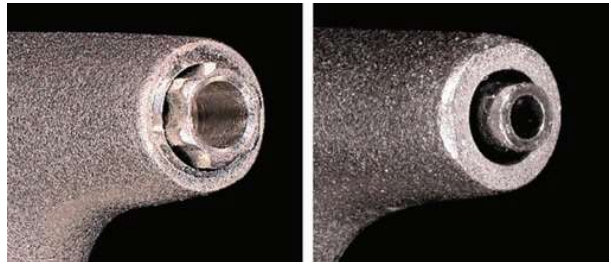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좌: 에어플로우® MAX 핸드피스 / 우: 기존 에어플로우® 핸드피스

에어플로우® MAX 핸드피스는 환자와 술자 모두의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웠다. 환자는 물이 훨씬 덜 튈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감을 표현했다. 또한, 단축된 시간과 부드러운 처치로 관리가 굉장히 편안했다는 피드백을 주었다. 술자의 입장에서서는 확연히 체감되는 가벼워진 무게 덕에 핸드피스 적용 시 피로도가 감소하였다. 또한 에어졸이 감소되어 더욱 안전하게 감염관리를 시행했으며, 술자의 가시성 역시 증가하여 편하게 처치할 수 있었다. 확보된 시야 덕에 착색제거 시 적용이 어려웠던 전치부 설측부위에도 간접 시진이 용이했다.



그림 3. 에어플로우® MAX 핸드피스 환자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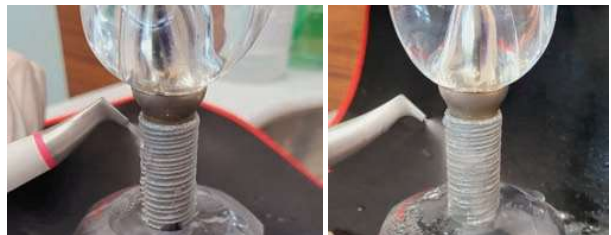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좌: 에어플로우® MAX 핸드피스의 직선 분사 / 우: 기존 에어플로우® 핸드피스의 넓은 분사

타액(침) 1cc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있는데 이중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부분은 침 속보다는 잇몸 속의 치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GBT 파우더 스케일링을 통해 전문적으로 세균을 관리해야 한다. 환자들은 치실, 치간 칫솔, 구강세정기 등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한다. 구강을 통해 들어간 세균은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구강관리가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인 것을 환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임상이들이 되기를 바란다. 건강의 시작, 입 속 세균관리부터!

문의 : ☎신흥 080-840-2875